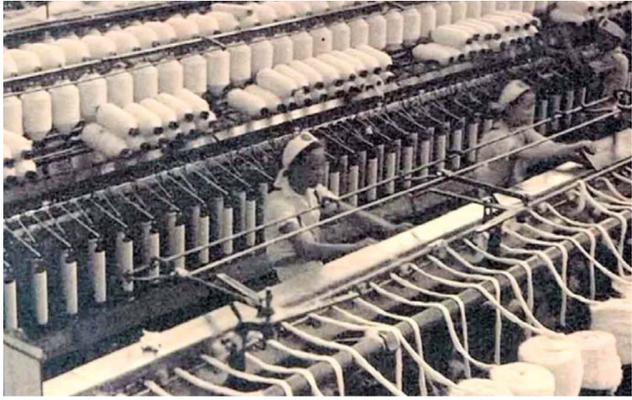


일제수탈·여공들 땀과 눈물 뺀 근대산업유산 보존해야



전남, 일신방직의 전신인 일제강점기 일본기업 종연방직(가네보방직).



1934년 철골구조로 지은 일신방직 화력발전소.



전남방직 직포현장.

(광주시 친일잔재조사 연구소 제공)

■광주 임동 전방·일신방직 평동 이전...공장부지 활용 방안 관심 업체측 "주상복합용지·역사공원 등으로 용도변경 해달라" 市, 곧 개발협상...시설·건물 보존, 공공기여 규모 쟁점 될 듯

광주 북구 임동 전방(옛 전남방직), 일신방직 광주공장이 평동산단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관심은 공장부지 활용 방안, 시설·건물 보존 및 공공기여 규모 등 크게 3가지 문제로 좁혀진다.

8만8000평(29만1801㎡)에 이르는 공장부지와 시설·건물 모두 두 업체 소유지만, 광주시와 업체간 부지개발계획(용도변경 등) 협상 단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장용지 용도변경 등은 업체 측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기게 되는 일종의 특혜성

행정행위로, 부지개발계획 협상단계에서 광주시가 공공기여 등을 명분삼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필요할 경우 광주시 예산을 들여 일부 부지나 시설은 매입,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두 공장이 일제 식민 수탈의 흔적이자 산업화시대 수많은 여공들의 눈물과 피땀이 뺀 근대산업유산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라는 점에서도.

◇일제 수탈흔적과 여공들의 눈물땀 뺀 근대산업유산=지금은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었지만 1961년 회사가 분할되기

전까지 전방, 일신방직 광주공장은 본래 하나였다.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현 부지에 설립된 종연방직(鐘淵紡績·일본식 이름 가네보방직) 광주공장이 뿌리다. 값싼 노동력과 옷감의 원료가 되는 목화 조달이 쉬운 식민지로 일본 기업이 진출했던 것이다.

1935년 첫 가동 당시 방직기 3만5000추, 직기 1440대 등 시설을 보유하고 종업원 수만 3000명에 달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였다. 전방, 일신방직 두 기업의 모태인 광주공장은 1960-80년대 섬유산업 활황기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시대까지 10대 소녀를 포함한 여공 수천, 수만명의 눈물과 피땀을 짜낸 가혹했던 노동 현장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월 '광주 친일잔재

조사 용역보고서'를 발표 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전방, 일신방직 광주공장 부지를 일제수탈 역사를 담은 '역사문화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파트 단지나 상업지구 같은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80년전 일제 강점기 당시 건립된 공장부지에 근대사의 어두운 뒷면을 조명할 수 있는 거칭 '근대 산업박물관' 건립을 대안으로 제시 한 바 있다.

지금도 일신방직 광주공장에는 1934년 공장 건설 당시 철골구조로 지은 화력발전소와 고가수조(물 저장시설), 집진시설 등이 한국전쟁 당시 공습과 화재, 철거 위기를 겪고도 원형을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다. 일신방직 화력발전소의 경우 2016년 철거 작업이 진행됐으나 회의차 광주공장을 찾은 당시 회장의 철거 중단지시로 위기를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 일신방직 "연구개발센터 및 주상복합용지, 역사공원 조성"-두 업체는 11월 부지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현 공장부지를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개발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공장 부지를 연구개발센터 용지, 지원시설 용지, 주상복합건물 용지로 바꾸려면 공장 시설 일부가 포함된 부지를 역사공원과 도로 등으로 만들겠다는 자체 계획을 포함시켰다. 다만 보존할 시설이나 건물의 내용과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업체 측 제안을 받은 광주시는 현재 관계부서 협의 등 실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 개발 구상이 적절한지, 공공기여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공장 건물 및 시설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

은 것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하는 내부 작업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업체 측에 제시할 '협상 조건'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업체와의 부지개발계획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시 내부 검토 및 도시계획위 자문 과정에서 전방, 일신방직 광주공장 부지 주변 원도심 일대가 아파트 건설 일색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될 전망이다.

김남균 광주시 도시계획 과장은 "업체 측으로부터 부지개발 계획 검토신청서를 접수받아 관계부서 및 실무 단계에서 검토 중"이라며 "광주시는 방직공장의 상징성과 시민 눈높이라는 2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고 업체와의 공장 부지 개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총리 김진표·법무 추미애...이르면 이번주내 발표

나머지 장관들은 중순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내에 차기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무총리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추미애 의원이 사실상 확정 단계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으로 '경제 총리'를 내세워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개혁 성향이 강한 5선 의원으로 검찰 개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인사 시기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행위 방해)를 신청하는 등 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이 오는 3일 부의·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이번주 후반에 개각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으로 국회 의사일정 전체가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이런 개각 시기도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번 주중 '원 포인트'로 먼저 발표하고, 총리 후보자의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이후에 발표하는 '순차개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신 다른 장관들에 대한 교체는 더 미뤄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교체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애초 청와대는 총리 교체와 맞물려 일부 장관들을 함께 바꾸는 '폭풍 개각'을 염두에 뒀으나, 최근 검증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총리와 법무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후임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른 장관들의 경우 후임자 발탁 및 검증이 완료된 뒤인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각과 맞물려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윤건영 국정기획실장실장의 총선 출마설과 함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후임자 물색이 진행되는 등 내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정수석실 겨냥한 검찰 수사 어디까지...靑, 촉각

노영민 실장 국회 해명 불구

확산 움직임에 난감·우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의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자 난감해하는 기류도 보이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으로 어느 정도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노 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된 뒤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검찰로 이

첩된 데 대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검찰 인력을 뒀고 검찰이 이런 정황과 '하명 수사' 의혹 간 연관성을 본다는 주장과 관련, 애초 '별동대'라 할 만한 직제의 조직은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靑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검찰수사관 승진채 발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검찰 수사관이 1일 승진 채 발견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수사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승진 채 발견됐다. A수사관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최근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수사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일과 관련해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인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임동욱 기자 tuim@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